

텍스트언어학 小考

— 텍스트언어학의 이해를 위해서 —

朴 用 三*

目 次

I. 서 論	IV. '문장초월문법'으로서 텍스트언어학
II. 텍스트언어학의 연구약사	V. 텍스트언어학과 번역
III. 텍스트언어학의 대상	VI. 결 論

I. 서 論

텍스트언어학(Textlinguistik)은 확실히 낯설은 언어학의 한 분과임은 틀림이 없다. 텍스트에 관한 연구는 이미 고대에서부터 있어 왔지만 텍스트의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면서 텍스트의 언어학(Linguistik des Textes) 내지 텍스트언어학(Textlinguistik)이라는 이름으로 언어학의 한 부분영역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¹⁾ “텍스트언어학”이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텍스트언어학의 연구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의 텍스트가 된다. 그래서 “텍스트언어학이란 무엇인가?”를 묻기전에 “텍스트란 무엇인가?의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H. Glinz는 “텍스트”를 빠를 내지 언어실행(Performanz)의 현상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언어실행 행위 속에서 야기되어지는 언어적 형상(Gebilde)

* 人文大學 獨語獨文學科 教授

1) “텍스트언어학”이란 용어를 누가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가하는 창시자에 관한 문제는 텍스트언어학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다. 수많은 학자들이 이 학문에 대해서 연구하면서도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E. Coseriu는 1955년에 스페인어로된 논문 “Determinación y entorno. Dos problemas de una lingüística del hablar”에서 최초로 “Texto, cf. art. cit. § 1. 2. 3.”에서의 개념을 사용했으나 그 당시 그는 텍스트언어학의 토대설정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언어의 일반적인 특징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그의 세 가지 언어구분의 세 번째 단계가 텍스트의 면이었다.

자체, 즉 말한 것이나, 쓰여진 것 모든 것을 문제시했다.²⁾ Halliday/Hasan의 다음과 같은 기술 가운데서 “텍스트”의 사용방식을 좀더 자세하게 특수화하고 있다: “The word *Text* is used in linguistics to refer to any passage, spoken or written, of whatever length, that does form a unified whole(…). A text is a unit of language in use. It is not a grammatical unit, like a clause or a sentence; and it is not defined by its size.”³⁾ 여기서 텍스트는 절이라든가 문장과 같은 문법적인 단위로 이해하지 않으며 더욱이 그 길이에 좌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용에서 “텍스트”는 언어 대상적인 소여성에 대한 기술 — 경험적 명칭수단이다. 이러한 언어적인 대상물에 대한 관계를 “텍스트출현”(Textvorkommen) 내지 “텍스트₁”로 표시하게 되고 이러한 사용에서 “텍스트”는 어떤 이론적인 단위, 어떤 이론적인 면에 대한 하나의 보조구조(Konstrukt)에 관련하게 된다. “텍스트”라는 추상적인 단위는 모든 텍스트에 공통적이어야 하고, 공통적일 수도 있는 특성들과 텍스트₁의 텍스트성을 결정짓는 특징들에서 나오는 하나의 보조구조이다. 이러한 “텍스트”라고 하는 본질을 구별하는 실체를 “텍스트₂”라는 개념으로 표시하여 구별하게 된다. 이 “텍스트₁”과 “텍스트₂”사이의 구별을 van Dijk의 “Text”와 “Discourse”의 구별과 대치시킬 수 있다.

E. Coseriu는 “텍스트”라는 개념이 아직도 모든 저자들에 있어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언어학의 대상설정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난다고 비평하고 있다.⁴⁾ 어떤 개론적 서술에서 텍스트에 대한 첫번째 정의로서 “완결된 언어적인 진술”(abgeschlossene sprachliche Äußerung)을 발견하게 되고, 이 정의에 대한 각주에서 좀더 정확하게 “텍스트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의도에 따라 언어적으로 종결된 언어단위인데, 이것은 때에 따라서 사용된 언어의 문법적규칙에 따라 형성되어 진것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덜 정확한 것을 떠나서 이 두 정의는 결코 포괄적인 것이 아니며, “텍스트”라는 동일한 대상에 관계하지 않는다고 했다. 첫번째 정의에서 어떤 한 언어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의에 따라서 텍스트는 여러 언어의 텍스트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 여러 언어의 텍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첫번째 정의에서 어떤 일정한 언어의 규칙이 역시 말해지지 않고 있다. 그 정의에 이러한 정밀성을 받아들이므로 텍스트는 독일어나 영어같은 일정한 언어에 병렬시킬 수 있는 무엇, 즉 개별어에 상응하는 무엇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텍스트의 아주 다른 개념을 주장하고 있는 데, 그 개념에서 어떤 일정한 언어의 규칙을 문제시하지 않는 텍스트의 개념에 속하는 “소

2) H. Glinz, “Text-Satz-Proposition. Internationale Einheiten und Grammatiche Einheiten.” In: Petöfi 1979, 43-48. *Lexikon der Germanistischen Linguistik*, Hrsg. von Hans Peter Althaus Helmut Henne/Herbert Ernst Wiegand, 2., vollständig neu bearbeitete und erweiterte Auflage, Tübingen 1980. S. 242. 에서 재인용.

3) M. A. K. Halliday/R. Hasan, *Cohesion in English*. London 1976, S.1, *Lexikon der Germanistischen Linguistik*/hrsg. von Hans Peter Althaus … -Studienausg.- Tübingen 1980, S.242에서 재인용.

4) E. Coseriu, *Textlinguistik: Eine Einführung*/Hrsg.u.bearb. von Jörn Albrecht. Tübingen 1980. S.5.

설”, “비극”, “희극” 등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것이 텍스트언어학에서 항상 혼동하고 있는 두 개의 개념이라고 규정하고 그는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출발하여 언어적인 영역에 있어서 세 가지 면을 구별하고 있다:⁵⁾

- a) 보편적인 면, 말하기 혹은 “언어일반”, 다수 개별언어들을 구별하기 전
- b) 역사적인 면, 역사적인 개별언어들의 면, 이들은 대부분 구별되는 부가물과 함께(독일어, 불어, 러시아어 등), 다수의 언어들의 면
- c) 텍스트의 면, 담화행위 내지 어떤 일정한 화자에 의해서 어떤 일정한 상황에서 실현되어 지는 담화행위의 조직, 물론 이것은 구어나 문어의 형태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담화행위이거나 연관을 가지는 담화행위의 짜임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Guten Tag와 같은 인사형이거나 Divina Commedia에 관계하든지 하나의 텍스트이다. 그 당시 E. Coseriu의 기본관념은, 그 대상이 역사적 개별언어의 기술과 개별언어였으며, 그의 두 번째 면과 일치하는 여러 언어들의 잘 알려진 언어학에 대한 언어학에 있어서 두 개의 다른 모양의 구별이었다.

W. Dressler는 그의 “텍스트언어학 개론”⁶⁾에서 “텍스트란 무엇이며, 무엇으로 텍스트가 구별되는가? 라고 묻고 있다. 그래서 “Hilfe!(사람살려!), “Feuer!(불이야!)와 같은 고립된 외침과 단테의 Divina Commedia를 사전이 설명하는 것과 같은 사이비 텍스트에서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를 질문하면서 텍스트의 정의를 하려고 하고 있다. 예를 들어 Rilke의 시 “Sankt Christoferus”는 완전한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Was sollte auch ein Kind...?와 같은 완전하지 못한 문장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⁷⁾

E. Coseriu는 그의 번역학에 관한 논문에서 독일어의 “Guten Morgen!”과 같은 인사말을 하나의 텍스트로 간주하고 있다. 이 인사말에는 아침이라는 언어외적 상황과 사람들이 서로 만났다고 하는 맥락이 이 불완전한 문장을 텍스트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맥락이 결여된 상황에서는 위의 진술은 다만 사전적인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그러므로 이 진술을 우리말로 옮길 때 중요한 것은 이 진술의 사전적인 의미인 “좋은 아침”이 아니라 이 진술이 실행되고 있는 같은 동일한 상황, 즉 “안녕하십니까”일 것이다. 이렇게 낱말의 의미가 아닌 텍스트의 의미를 E. Coseriu는 의의(Sinn)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텍스트에서 “의의”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 의의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면 텍스트 내에서는 비 문장이라든가 비 문법적이라는 사항들이 극복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텍스트의 언어외적, 사상적, 사회적 맥락의 의의와 관련해서 W. Dressler는 D. Boldinger의

5) E. Coseriu, Ebenda, S.7.

6) W. Dressler, *Einführung in die Textlinguistik*. 2., durchgesehene Auflage, 1973.

7) W. Dressler, Ebenda, S.2.

“I'm the soup”라는 문장을 인용하면서 이 진술을 한 사람은 어느 큰 식당의 주방에서 특별히 국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요리사의 표현으로 그 주방의 맥락을 떠나서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이라고 했다. 또 식당이나 카페에서 손님이 주문한 커피를 아직 받지 못했고 커피가 아직도 여기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당 종업원이 주의를 받는 상황에서 “Hier ist der Kaffee!”라는 손님의 비논리적인 외침과 비교해보면 흥미있는 일이다.

어떤 텍스트의 의미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지는가를 묻는 것은 텍스트의미론의 영역이며, 언어외적인 맥락에서 텍스트의 기능이 가능한가를 묻는다면 그것은 텍스트화용론의 과제이다. 또 텍스트의 의미가 어떻게 통사론적으로 표현되어 지는가의 문제는 텍스트통사론의 영역이다. 문장음성학과 유추해서 음성학적 특성들과 통사론적인 텍스트형상을 연구하는 텍스트음성학이 있다. 그러므로 텍스트언어학의 과제는 인접분과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접분과들에 의해서 어떻게 촉진되어 지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언어학적 텍스트개념의 시초에 이르는 최초의 관찰은 수사학(Rhetorik), 시학(Poetik), 문체론(Stilistik)에 의해서 되어졌으며, 구조적 언어학에서는 1950년 직전에 언어적인 최고의 단위는 문장(Satz)이 아니라 텍스트(Text)가 형성하며, 그 때문에 언어학의 영역에 속한다고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텍스트언어학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해서 먼저 본 논문에서는 매우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인 텍스트언어학의 연구역사를 살펴보면서 시대마다 토론되어진 사항들을 소개하고, 특히 W. Dressler의 텍스트언어학에 관한 토론을 소개하면서 그 이론들을 비교분석하고 그 이론의 실제적인 응용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시도할 것이다.

II. 텍스트언어학의 연구역사

본 장의 기술을 위해서 특히 다음의 문헌들이 사용되었다 :

W. Dressler, *Einführung in die Textlinguistik*, Tübingen 1973.

E. Coseriu, *Textlinguistik. Eine Einführung*, Tübingen 1980.

K.-E. Sommerfeld/G. Starke u. a., *Einführung in die Grammatik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Leipzig 1988.

텍스트언어학의 선구자로서 특히 세가지 정신적인 조류를 들고있다. 가장 오랜 선구자는 그리스인에게서 시작하여 로마인을 거쳐 중세기와 근대로 들어온 수사학(Rhetorik)이다. 웅변가의 두 가지 중요한 과제는 부분적으로 텍스트언어학의 분야에 해당한다: 사과의 정돈, 혹은 배치 그리고 언어적인 표현 혹은 표현술(웅변술)이다. 물론 전통적인 수사학은 상당히 규정적이었고 규칙적이며 일상어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지 않았다. 고전 문필가들의 모범을 중요시했다. dispositio, elocutio에 있어서, 사

고의 표현 혹은 말의 표현 그리고 예술성이 풍부한 완전문구조에 대한 학문에서 수사학은 더 후기의 문체론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수사학(Rhetorik), 문법(Grammatik), 토론술(Dialektik)에 있어서 자유로운 예술(Freie Künste, liberal arts)을 중세기적인 것으로 분할할 때, 텍스트언어학의 오늘날의 영역은 본질적으로 수사학에 해당한다.

수사학, 문법, 문헌학(Philologie)에서 영향을 섭취한 텍스트언어학의 두번째 선구자는 문체론(Stilistik)이다. 얼마전까지도 문장이 가장 상위의 언어적 단위로서 매우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다. 그 때문에 모든 문장을 넘어가는 관계들은 필연적으로 문체론의 대상이어야했다. 말하자면 문장의 수준을 넘어가는 모든 사항들은 문체론에서 설명되고 해명되어졌다.

텍스트언어학은 다시 계속적으로 비로소 우리의 세기에 생겨난 어떤 제3의 조류, 다시말하면 이야기(Erzählung)의 구조도식의 구조적 분석에 의해서, 특히 국민문학과 신화에서 중대한 충동을 받고 있다. 이 조류의 대표자로서 V. Propp, V. Sklovsky, R. Jakobson과 불란서의 구조주의자이며 인류학자인 G. Lévi-Strauss가 명명되어 진다.

이와 함께 언어학자들 가운데도 더 좁은 의미의 텍스트언어학의 선구자들이 있는데, 특히 기능적 문장조망(Funktionelle Satzperspektive)의 대리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H. Weil(1887)이다. 그는 낱말연속을 사고연속(과정)에 관련시켰고 문법에서 제외시켰다. 이 양자에 대한 그의 관점이 번역할 때, 문법보다는 오히려 낱말의 순서를 유지한다고 하는 충고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오늘날의 텍스트언어학의 발전에 대한 최초의 동인을 Z. S. Harris(1952)가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음운론, 형태론, 문장론에서 미국의 분포주의(Distributionalismus)의 구조적인 방법론을 텍스트의 수준으로 확장한 그의 유명한 “담화분석(Discourse Analysis)을 가지고서였다. 동시에 그는 통상적으로 부분문장(주문장, 부문장)에 상응하는 연속 속에서 텍스트를 분절하고 의미론적 혹은 형식적 유사성을 근거로 이러한 연속사이에서 등가를 설정하고 있다. 의역을 하는 변형을 통해서 그는 텍스트를 규칙화하고 있다. 즉, 의미론적이고 형식적인 등가를 높혔기 때문에 주어진 텍스트의 모든 문장들이 등가부류로 정돈될 수 있다.

유럽에서 텍스트언어학은 기능적 문장조망(Funktionelle Satzperspektive)을 실행하는 프라그 학파에서 내포적으로나 혹은 명시적으로 행해졌다. 왜냐하면 이미 알려진 것으로서 테마(Thema)와 새로운 정보로서 레마(Rhema)는 문장을 초월하는 틀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능적 문장조망의 생각은 또한 다른 학파에서도 효과를 가지게 되었는데, Halliday와 많은 생성주의자들(Pike, Nikel, 또한 Sgall, Isačenko도 비교하라)이 그러하다.

독일에서 텍스트언어학은 우선 Münster에서 크게 주의를 기울였다. P. Hartmann의 Konstanz로의 이주 결과로서 거기에서 텍스트언어학자들의 한 그룹이 형성되었는데, 예를 들어 Stempel, Ihwe, Rieger, Petöfi 등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H. Weinreich의 연구로 거슬러 올라가는 더 큰 중심지가 Bielefeld에 있었으며, Gülich, Raible 등의 학자가 있었으며, 지금도 텍스트이론가 S. Schmidt가 있다. 독

일에서 텍스트문법의 필연성이 일찍이 인식되었으며, 우선 먼저 구조적 문법을 위한 동 베르린 연구소에서 있었는데, 일반적인 요청과 주장의 형태에서(Bierwisch, Motsch, Hartweg, Heidolph, Isenberg, Steinitz)뿐만 아니라 자세한 연구(특히 스페인어에 대해서 Isenberg)의 형태에서 인식되었다. 그 후에는 특히 독일연방공화국에서 Wunderlich, Thümmel, Vater, Kummer, Rieser가 따라나왔고, 스웨덴에서는 Petöfi(지금은 독일), 홀랜드에서는 van Dijk가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의 생성주의자들은 우선 텍스트면을 의식적으로 문법이론의 영역에서 제외시켰는데, Chomsky(여러군데에서), Katz-Foder, Moore 그리고 특별히 명백하게 Bever-Ross(1965)가 그러했다. 기껏해서 문장문법의 규칙들이 문장의 범위를 넘어가는 연관에 확대되어졌고 동시에 Koreferenz의 개념과 Präsupposition이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70년대의 출판들은 많은 미국 생성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Sanders 1970에서).

H. Rieser의 지도하에 있는 Konstanz에서 한 그룹은 어떤 종합문법의 생성적 모델을 얻어냈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문어적인 텍스트에 대한 관용구조문법(Phrasenstrukturgrammatik)이다. 이중적이고 문맥에서 자유로운 규칙들(주장된대로 2000이 훨씬 넘는다)이 텍스트문장론의 기본구성요소를 남겨놓는데, 이것은 해석적 의미론 — 내용요소적 의미론을 통해서 유지되어지고 여과되어진다. 여기서는 연결조작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변형부분과 문장통사론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것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지금도 역시 Konstanz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J. S. Petöi는 합성(부호화, 생성화)과 분해(탈부호화, 분석)에 대한 두 가지 방향의 모델을 만들어 내었다. 기본요소는 의미론적(생성적의미론과 Zolkovskij-Mel'cuk의 의미론적인 종합의 의미에서)인데, 물론 정돈되지 않은 집합을 형성하고, 어떤 수평적인 연쇄는 아니며, 문서이론에서 어휘 — 개념들의 요소들을 포함했다. 변형규칙은 텍스트기저에서 직선화와 표층구조에 대한 관계를 만들어내야 하는 정보군으로서 두어져 있다. 표층구조적인 문장연속과 기저의 텍스트핵심 사이에는 중재적인 구성단위들이 놓여있다. 텍스트핵심은 모든 비 의사소통적인(즉, 비 실행적이고, 상황적이고, 시간적이고, 연결적인) 술어들을 포함하는데, 이 술어는 일련의 주제적인 망을 형성하며, 동시에 모든 망은 동일한 논거를 가지는 모든 술어들에서 생겨난다. 텍스트핵심은 모든 주제에 적합한 망이 서로 교차되고, 그것이 어떤 관계도식을 통해서 표현되어 진다면, 문맥적(ko-textuell)으로 계속한다. 의사소통적인 망은 모든 여타(=의사소통적인) 술어들을 포함한다. 문장을 위한 형성 규칙은 문맥감각적(ko-text-sensitiv)이다.

T. A. van Dijk도 역시 의미론적 텍스트기저(Textbasis)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기저를 이루는 결합된 변이로서 비 의사소통적인 술어와 논거(Aktanten, 동사의존요소)를 가지는 명제에서 생겨난다. 그 명제는 실행적이고 화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변형은 양적요소를 통해서 결부되어진다. 여기서 제안된 형식화는 Dressler가 제안하고 있는 텍스트주제적인 기저에 상응한다. 완전한 의미론적인 표현이 그러한 기저에서 어떠한 조정장치에 의해서 생겨나는지 van Dijk은 아직도 해결하지 않았다.

기저구조와 표층구조사이에 의존관계가 덧붙여질 수 있는데, 표층구에 대해서 van Dijk은 수학적인 모형을 생각하고 있다.

“논리적인(부분적으로 역사적인)” 텍스트언어학의 발전에 있어서 세가지 단계의 성찰이 구별될 수 있다. 첫번째에서는 문장이 가장 높은 언어의 단위로서 보여진다. 즉, 체계(langue, 화자의 능력에서)로서 언어는 문장들이나 문장구조계획(Satzbauplan)의 총체에서 생겨나며, 하나의 텍스트는 문장의 자유로운(개방된, 열린) 병렬축척일 것이다. 동시에 규칙성이 나타난다면, 이들은 “linguistique de la parole”(빠롤의 언어학)이나 혹은 문체론에 의해서 연구되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텍스트규칙성은 언어적능력(Chomsky의 뜻에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수행(Moore의 1967 비교)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장문법에 두고 있는 문법의 제한은 명백한 초문장적인 규칙성과 관련해서 적어도 두 개의 불리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

- 1) 하나의 텍스트는 등차적으로 부분장으로 분해하는 하나의 유일한 긴 문장으로서의 텍스트를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어떤 대화에서는 불가능하다.
- 2) 텍스트조건들이 문장들의 사용과 타당성을 위해서 수립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언어적, 문맥적(ko-textuelle, textinterne) 환경이, 문장들이 표현되는 그 테두리내에서 언어외적이고 문맥적인 상황과 대응하게 되어진다.

제 2의 발전 단계에서 진술(영; utterance, 불; énoncé, 러; vyskazyvanie)의 단계가 인식되어지는데, 이것은 하나 이상의 문장에서 생겨난다. 최소의 의사소통적인 단위로서 표현은 어떤 사람의 계속적인 진술, 처음과 나중에 이 사람의 침묵을 통해서 경계지어지거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하기의 옮김에서 생겨난다. 진술이 가장 상위의 단위로서 고찰되어지는 경우, 여러 사람들의 진술에서 생겨나는 대화(Dialog)는 언어학적 단위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말을 서로 중단하고 말을 한다면, 더우기 분석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문자적인 언어형태에 있어서 진술에 상응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한 권의 완전한 책과 같은 것은 어떤 길게 종결된 단위인가?

제 3의 성찰 단계에서 최고의 언어적 단위로서 텍스트(영; discours, 불; discours, 이; discorso, 러; tedst)가 찾아질 수 있다. 인간은 텍스트에서 말하고 쓴다. 혹은 적어도 인간은 그것을 의도할 것이다. 텍스트들은 인간이 그 속에서 표현하는 일차적인 언어기호들이다. 전체로서의 텍스트가 비로서 어떤 종결된 의미를 가지고 그 때문에 번역을 위해서도 타당한 단위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언어적으로 거의 의미가 동일한 텍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텍스트의 전달을 통해서만이 다언어적으로 의미가 동일한 문장들이 해결된다.

III. 텍스트언어학의 대상

텍스트언어학은 자연어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삼고, 모든 텍스트출현(Textvorkommen)에 공통적이고 본질적인 특징들을 기술하고 또는 언어적인 텍스트를 정의하고 텍스트들을 정돈하고 분류하는 임무를 가지는 학문적인 분과이다.⁸⁾

이와 같은 텍스트언어학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자연어의 텍스트”라는 개념은 역시 모호하다. E. Coseriu에 의하면 자연어도 무수히 많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어의 규칙에 상응하는 수 많은 텍스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어, 영어, 독일어 등으로 된 텍스트와 하나의 개별언어 내에서 완성된 텍스트인 “소설”, “비극”, “희극” 등을 구별하는 어떤 텍스트의 구별인데, 이들 텍스트 내에서는 다른 언어의 텍스트와 구별되는 어떤 일정한 언어의 규칙을 문제삼지 않는다.⁹⁾

70년대 이후 텍스트언어학의 다른 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Moskalskaja¹⁰⁾는 일반텍스트이론(algemeine Texttheorie), 텍스트문법(Textgrammatik), 텍스트문체론(Textstilistik)을 구별했으며, Dressler¹¹⁾는 텍스트의미론(Textsemantik), 텍스트문법(Textgrammatik), 텍스트통사론(Textsyntax), 텍스트음성학(Textphonetik)으로 나누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대로 텍스트언어학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개념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텍스트언어학의 연구방향도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여러가지 상이한 텍스트라는 개념에 대한 토론으로 그치고자 하지 않고 평이한 텍스트의 정의와 함께 텍스트언어학이 추구하는 대상을 기술하고자 한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의 텍스트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의사소통적이고, 의미론적이며 형식-구조적인 전체성이며, 어떤 사건줄거리에 따른 계획(의사소통계획)에 따라 발전되고, 하나의 공통적인 주제에 관계하고, 의의있고 목적에 상응하도록 정돈되고, 어떤 일정한 언어적인 수단을 통해서 서로 결합된 문장들(극단적인 경우에는 텍스트가 하나의 문장 또는 신타그마로 구성될 수 있다.)의 응집된 연속이다. 텍스트는 하나나 혹은 여러 화자 또는 저자에 의해서 생산되며, 하나 이상의 수신자에 의해서 규정되며, 구어나 문어로 실현되어 진다(Mikro-, 혹은 Kleintext, Makro- 혹은 Großtext). 그러나 이러한 텍스트의 특징은 변이적이다.

텍스트의 정의에서 시작해서 텍스트언어학의 대상인 텍스트의 구별은 텍스트언어학의 기술의 방향에

8) Lexikon der Germanistischen Linguistik, Tübingen 1980, S.243f.

9) E. Coseriu, Ebenda, S.6.

10) Moskalskaja, *Textgrammatik*, Leipzig 1984. S.7. *Einführung* in die Grammatik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von e. Autorenkollektiv unter Leitung von k. -E.Sommerfeldt u. G.Strarke. 1.Aufl. Leipzig 1988. S.295에서 재인용.

11) W.Dressler, Ebenda, S.4.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다음에 소개되는 W. Dressler의 텍스트언어학 기술은 한 언어내에서의 텍스트에 관한 이론이라기 보다는 여러 언어내에서의 텍스트에 관한 언어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특히 그의 잘 알려진 저서인 “텍스트언어학 개론”(Einführung in die Textlinguistik, Tübingen 1971, 21973)에서 특히 많이 언급되어지는 용어들과 이론들을 토론하고자 한다.

IV. ‘문장초월 문법’(transphrastische Grammatik)으로서 텍스트 언어학

1. 텍스트문법

W. Dressler의 텍스트언어학은 문장초월문법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 점이 E. Coseriu의 텍스트언어학 이론전개와 구별이 된다. Dressler의 텍스트언어학 개론에 대한 서평에서 그의 이론이 E. Coseriu 자신이 전개한 텍스트언어학의 제 2의 텍스트언어학, 즉 문장초월문법 개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 훌륭하다고 했다.¹²⁾

그러므로 Dressler의 텍스트언어학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고립된 문장들내에서 일어나지 않고 여러가지 상이한 크기의 진술들 가운데서 생기는데, 이 진술들은 상황과 문맥가운데 깃들어 있으며 문장의 경계를 넘어(“transphrastisch”) 구조되어져 있다고 하는, 화용론적인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진술을 텍스트라고 부르게 된다. 이와 같은 텍스트의 이해에서 “Hilfe!”나 “Feuer!”와 같은 외침도 상황문맥을 통해서 텍스트로서 이해가 된다.

Dressler는 텍스트문법내에 텍스트의미론, 텍스트문장론 더 나아가 텍스트음성학과 텍스트문자소론을 포함시키고 있다. 먼저 텍스트의미론에서는 어떤 텍스트나 텍스트부분에 있어서 의미구조와 특히 개별문장의 의미구조를 넘어가는 의미론적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이것이 상호적인 텍스트의 의미론적 응집력(Kohärenz) 내지 문장들의 의미론적 결집력(Kohäsion)의 근본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다음 두 문장에서는 이러한 응집력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코 올바른 텍스트로 간주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두 문장이 문법적인 오류가 없다고 해도 두 문장 사이에 의미론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올바른 텍스트가 아니다.

I wrote my grandmother a letter yesterday, and six men can sit in the back of a Ford.

그 때문에 수 많은 등장인물들이 출현하고 있는 전화번호부나 백과사전 등이 사이버 텍스트로 간주된다. 그래서 Morgenstern의 의미없는 낱말로 되어 있는 시 “Das große Laula”

12) E. Coseriu, Ebenda, S.1.

Krokolokwafzi? Semememi!
Seiokronte - Prafriplö : ...

는 구똥점을 가지고 있어 실용적으로 텍스트로서 의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텍스트문법적으로 고도의 변칙을 보여주고 있다.

2. 텍스트의 주제

텍스트가 구성될 때 텍스트나 텍스트단편의 주제(Thema)는 텍스트의 의미론적인 응집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 구어적이거나 문어적인 텍스트의 작성에서 생산해내야 하는 모든 텍스트의 의미내용을 상상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 텍스트 생산자는 그가 표현하려고 하는 텍스트의 주제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주제(Thema : Rhema관계의 Thema와는 구별됨)는 간단하거나 혹은 복잡한 기저문장(Basis-Satz)의 형태로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다. 이 테마에 대한 보기로서 Dressler는 Koch의 예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는 Goethe의 시 ‘방랑자의 밤 노래’ Wandrers Nachtlied(“Über allen Gipfeln ist Ruh...”)에

Everything, and man is not expected, gets this time of biological inactivity

라고 주제를 붙였다. 그리고 Dressler는 삽입된 문장은 주제에서 발전된 부제를 표현하기 때문에 생략될 수 있다고 했다.

3. 재현과 해의

Dressler는 의미론적인 응집력의 수단으로서 재현(Rekurrenz)과 해의(Paraphrase)를 들고 있다. 어떤 낱말의 반복(Repetition)의 형태에서 재현이 의미론적인 응집력의 가장 단순한 수단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이다 :

Ich sah ein Auto. Das Auto war blau.

그러나 이러한 낱말반복이 어느정도 가능한가는 문제시 된다.

John ran home and John ran home.

과 같은 반복은 Green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연속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1) 화자가 수다스럽다거나 말이 많으며 혹은 청자가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를 믿지 않는다고 화자가 생각할 때, 반복은 확인의 의미로서 가능하다 :

Hans lief weg. Ja, Hans lief weg.

2) 액센트의 변이를 통해서 표현된 강조가 1)에 연관될 때 :

Hans lief weg. Hans lief weg.

3) Hans lief und lief.

Hans lief. Und Hans lief.

에서의 반복은 Aber es nützte nichts(그러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문장이 있기전 집중적인 것이다.

4) 문학에서 반복은 텍스트를 끝내게하는 수단이다. Gunter는

And three miles to go before I sleep

를 두번 반복하면서 끝내는 Horst의 시 “Stopping by words on a Snowy Evening”을 인용하고 있다.

5) 억양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변화시키지 않고 비웃기 위해서 대화상대편의 표현(예를 들면, 인사)를 반복할 수도 있고,

6) 사람들이 그 표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7) 믿지않기 때문에 반복할 수 있다.

8) 서약과 맹세를 할 때 정확한 반복이 필요하며,

9) 정확한 반복은 질문에서 나오는 자료를 인용할 수 있고 혹은 낱말로 반복되어질 수 있다.

또 달리 Gasele라는 페르시아어의 시형에서, 가장 오랜 그리스어문학과, 끝에 있는 담화가 그 담화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예를 들어 중세 아일랜드의 서정시에서 인기있는 순환구성(Ringkomposition)에서 후렴의 반복이 있다. 낱말들, 문장부분 혹은 문장들(이들의 표층적인 형태에서)의 반복은 의미론적인 응집력의 뜻에서 어떤 테마나 테마의 부분들을 확장할 수 있다.

해의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까지 재현을 찾아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미 내용들이 동일한 낱말들, 문장부분 혹은 문장들의 형태에서 반복되지 않는다. 반대로 하나의 낱말이 어떤 동의어로 대치된다. 예를 들어 ein Auto가 der Wagen이라는 동의어로 반복된다. 또 다음 문장

Er wohont mir zu Hause. Unter meinem Dach-

에서 문장요소 zu Hause가 unter meinem Dach에서 유추적인 반복을 하고 있다. 다음 문장

Ich bin hungrig. Beeile dich also mit dem Essen !

에서는 유추적인 전체 변이를 통해서 유추를 보여준다.

텍스트문법에서 가장 논란된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공동지시관계(Koreferenz 즉 낱말들이 공동적이고 일치하는 지시관계), 대치(Substitution), 선행지시(Anaphora)라는 용어로 요약될 수 있다. 공동지시

관계의 토대는 지시관계(Referenz)인데, 이것은 언어외적인 세계에 대한 어휘 혹은 어휘소(어휘적 형태소) 혹은 사전기입의 직접 내지 간접적인 관계이다. Ogden과 Saussure에 의존하여 Dressler는 어떤 낱말의 의미내용은 직접 혹은 화자를 넘어 외부세계와 관계한다고 했으며, Heger¹³⁾에 따르면 그 사이에 초 언어적이고 사고적인 현상으로서의 개념이 중재한다고 했다. 언어는 결코 세계의 직접적인 모사(Abbild)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실제적인 말하기 과정에서 어떤 낱말의 의미내용을 외적세계의 어떤 완전히 특수한 물건 내지는 그의 개념적인 생각에 관계하고 있다(Denotat). 화자가 동일한 낱말을 다시 한번 동일한 지시물에 관계지으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공동지시관계(Koreferenz)를 기대하게 된다. 공동지시물이 가능하다면, 통사론적으로 Anaphora(결과형태<=Subsequens>에서 선행 형태<=Anteziedens>로의 뒤로 가는 지시) 혹은 Kataphora(반대의 방향 앞으로의 지시)가 생겨날 수 있다. 이 두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Dressler의 보기를 인용한다.¹⁴⁾

Peter_i sah dies_j : '(Ein Hund verfolgte eine Katze_k).
Diese_k rettete er_i.

동일한 지시물 표시 i, j, k로 표시된 요소들은 때때로 동일한 지시물에 관계하며 공동지시적이다. dies_j는 kataphorisch(전방지시적)인데,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문장에 관계하기 때문이다. diese_k(=Katze)와 er_i(=Peter)는 Anaphorisch(후방지시적)이다. 공동지시와 지시물에서 생겨나는 여러문제들을 Dressler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지면관계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에서는 대어형(Pro-Formen)을 통한 후방지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후방관계(=Anaphora)의 동사적 실현은 이미 언급된 어떤 낱말이나 복잡한 요소들을 하나의 대어형으로 교체할 때 생긴다. 이렇게 해서 어떤 명사에 대한 하나의 대명사가 있게 되는데, 이들이 지시적으로 발화행위 속에 있는 언어외적 세계에 관계하지 않을 때이다(언제나 1인칭과 2인칭의 대명사가 그렇다. 그러나 "man"을 뜻하는 you는 제외하고). 그리고 그 방향은 일반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명사화 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두 문장에서 두개의 공동지시된 명사에 의해서 결과형이 어떤 대명사로 교체된다.

이러한 대명사외에도 대동사(Pro-Verben)와 같은 다른 대어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영. to make, do; 독. machen, tun(Schnart Paul?—Ja, das tut er.) 그 외에도 대부사(darauf, danach, dort, hier, damals, dabei, so, anders anderswo), 대형용사(solcher; z.B. Paul sah einen schwarzen Dackel. Er liebte solche Hunde/Dackel/Tiere.)

이러한 모든 대어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공통적이다. 1) 만일 대어들이 대신하고 있는 요소들

13) K. Heger, *Monem, Wort und Satz*. 1971 Tübingen. S.27ff. W.Dressler, Ebenda, S.22에서 재인용.

14) W. Dressler, Ebenda, S.23.

보다 더 큰 범위와 더 작은 의미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조동사와 대명사는 상당히 의미가 없게 된다.
 2) 대어형은 대체로 더 짧다. 관사선택을 가산할 수 있는 대명사적 후방지시에서 후방지시에 관계하는 선행사(Antezedent)가 특수적(spezifisch)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에 후방지시의 형태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다음 두 문장의 보기에서 첫 번째 문장의 Pfeife가 특수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 문장의 후방지시는 두 가지로 가능하다.

Hans suchte eine Pfeife.
 Schließlich fand er sie/die Pfeife.

여기서 Hans는 어떤 특수한(부분적인, 단수의, 개별적인, 비 일반적인) Pfeife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찾고 있다. 그러나 첫 번째 문장에서 Pfeife가 비 특수적이 아니라면, Hans가 일반적인 어떤 Pfeife, 즉 Pfeife라는 부류가운데 한 대표자를 찾았다면 이에 상응하는 두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다.

Schließlich fand er eine (Pfeife)/irgendeine.

이에 대해서 E. Coseriu는 다른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두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의 eine는 후정보(Nachinformation)를 말해 주며, 두 번째 문장의 die는 전정보(Vorinformation)를 언급한다. 도해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⁵⁾

Dort stand auch ein Mann mit einer Zigarre.
 Der Mann mit der Zigarre war...

← die	eine →
(Vorinformation)	(Nachinformation)

물론 이러한 두 관사의 경우는 많은 텍스트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 그러나 이러한 지시체계가 그 텍스트를 더 잘 이해하게 하는지는 의문시된다고 E. Coseriu는 덧붙이고 있다.

어떤 대명사는 표층적 구조의 어떤 명사에 후방적 지시로만 관계할 수 있다고 했다. 즉, 기저구조 속에 있는 하나의 요소는 하나의 충분한 선행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아래 문장은 옳다.

Maxens Eltern sind tot. Er vermisst sie tief.

이제 Waise라는 낱말은 의미론적인 토대에서 볼 때 '그의 양친이 죽었다'라는 데로 환원되어도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의 양친이 죽었다'라는 문장의 기저구조에 '그는 고아이다'가 포함된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문장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Max ist eine Waise. *Er vermisst sie sehr.

15) E. Coseriu, Ebenda, S.32.

앞 문장의 기저구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문장의 sie는 Max의 양친을 대신하는 후방지시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어떤 품사들은 천성적으로 정의되어져 있다. 이들은 특수하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유대명사, 유일한 것(예. 태양), 1인칭과 2인칭대명사, 호격, hier, jetzt와 같은 부사들이다. 그러나 Dressler는 다음과 같은 전화대화를 예로 들어 이러한 지시가 그 상황에서 불분명하다고 했다.

Wer spricht? – Hans.

여기서 여러 Hans가 동일하게 문제시 될 때 라면, 그것은 불분명한 대화가 될 것이다.

Hier ist Hans.

에서 hier는 hier의 관계가 분명할 때 만이 분명하다.(국제전화를 할 때 흔히 대화의 시작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의 확인이 어렵다는 것은 잘알려진 일이다.)

Ich bin es.

라는 대답은 해당자가 목소리에서 분명하게 인식되어질 수 있거나 그외 다른 이유에서 아무도 문제시 되지 않을 때만이 다행하게 될 것이다.

Dressler는 후방지시의 생략법과 연관해서 그의 중요한 예들을 인용하여 텍스트언어학에서 생략법을 이해하고자 한다.

대리형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선행사보다는 더 짧으며, 후방지시가 없는 형태는 극단적인 경우이다. Dressler는 Karlson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는 예를 들어

Peter came. I suppose you know.

라는 문장에서 대리형이 두어질 수 있는 곳과 it나 this가 삽입되어질 수 있는 곳과 같은 경우에 생략법의 개념을 제한하고 있다. 생략법의 기본전제는 생략된 대리형이나 혹은 반복되어야하는 선행사들의 회복가능성이며, Chomsky에 따르면¹⁶⁾ 제거변형에서 일반적으로 유효한 원리이다. 그러므로 방금 언급된 무엇이나 혹은 주어진 상황으로 부터 알려진것은 제거되어 진다고 말하고 있다. 허용된 생략법의 범위는 흔히 언어특수적(Sprachspezifisch)이고 문장통사론적으로 규제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대화에서 예를 들어 라틴어, 슬라브어, 겔트어와는 달리 독일어, 영어, 불어에서는 대명사를 제거할 수 없다. :

Wirst du die Aufgabe machen? – Ja, ich werde sie machen.

16) N. Comsky,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1965 Cambridge, M.I.T.Press. S. 144f. Dressler, Ebenda, S.32에서 재인용.

이런 경우에 슬라브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에서는 대명사의 생략이 훨씬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에서의 자유스러운 생략 때문에 그렇게해서는 안되는 영어, 독어, 불어 등 외국어를 배울 때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후방지시적-생략법적 제거는, 그것이 명백하게 회복될 수 있는한 제거된 요소에 대한 후방지시를 방해하지 않는다. 여기서 Dressler는 Postal-Grinder의 다음과 같은 예를 비교하고 있다.¹⁷⁾

Max didn't buy an egg, but Sheila did, and it was rotten.

여기서 it는 물론 Sheila가 산 달걀에 관계한다. 그리고 Max가 사지않은 비 특수적인 달걀에 관계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중간문장에서 it는 생략이 가능하다. 또 다음과 같은 친근한 회화에서 생략된 문장들이 사회언어학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Bin heute weggegangen, Kennen wir doch.

이러한 생략들은 문체층에 부속되어져 있고 음운론적인 신속발화규칙과 함께 동시에 나타난다. 그래서 Ich verstehe das라는 말참견은 먼저 Ich verstehe로, 그리고 Ich versteh로, 결국에는 Versteh로 단축되어질 수 있다. 반면에 Verstehe라는 중간형은 통사론적인 단축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음운론적인 단축으로는 부자연스럽다고 Dressler는 부언하고 있다.

다음은 Goethe의 Heidenröslein과 같은 경우들이 문체적인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Sah ein Knab ein Röslein stehn...:War so jung und morgenschön.

여기서 es의 생략은 한편으로 고품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속적이고 소박하게 작용한다고 Dressler는 해석하고 있다. 또 이러한 생략에서는 작은 어린아이가 es와 같은 형식어를 생략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말하기를 생각나게 한다고 했다. 어린이들의 음운론에 대한 D.Stampe의 견해와 평행해서 Dressler도 역시 어린이들이 생략규칙을 가장 강하게 실행하고 비로소 언어습득의 더 광범위한 과정 속에서 그때 그때의 성인어의 모범에 따라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⁸⁾ 그때 생략규칙은 새로 배워야 하는 규칙이 아니고, 이것은 의미론적으로 자명한 것을 생략하는 명백히 천부적인 원리로 되돌아가는 규칙이다. 이러한 원리를 취급할 때 개별언어의 제한들이 습득되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서 Dressler는 Dougherty¹⁹⁾의 'conjunction rule'(접속규칙)과 Tai²⁰⁾의 'coordination reduc-

17) P.M. Postal-J. Grinder, Missing Antecedents. LIng 2, 269-312. Dressler, Ebenda, S.33에서 재인용.

18) W. Dressler, Ebenda, S.34.

19) R. Dougherty, *An Interpretive Theory of Pronominal Reference*. Foundation of Lg. 5, 488-519. W. Dressler의 Ebenda, S.34에서 재인용.

20) J. Hau-y Tai, *Coordination Reduction*. Diss., Indiana Univ. Linguistics Club. W. Dressler, Ebenda, S.34에서 재인용.

tion'(대등감축)이 문장연관에서의 감축으로서 생략과 유사하다고 했다.

'conjunction reduction'은 두 개의 평행문장의 첫번째 문장을 감소한다. 예를 들어 다음 세 문장에서 (a)가 (b)나 (c)로 감축된다.

- (a) Hans ißt Fleisch und Maria ißt Fleisch.
- (b) Hans und Maria essen Fleisch.
- (c) Hans ißt Fleisch. Maria auch.

'conjunction reduction'은 더 가까운 귀속성을 보여준다. 그 때문에 다음의 (a), (b) 두 문장은 의미가 같지 않다.

- (a) Hans wird singen und spielen oder er wird nach Hause geschickt werden.
- (b) Hans wird singen und er wird spielen oder nach Hause geschickt werden.

(a)에서 Hans wird가 생략되어 있는 spielen은 singen과 한 그룹을 이루어 oder 이하와 대립되며, (b)에서 er wird가 생략되어 있는 oder 이하 문장은 바로 앞 문장에 귀속되어 Hans wird singen과 대립된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 외에도 Dressler는 생략에 대해서 몇가지 경우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지면관계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에서는 논리적인 포함과 함축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한다.

서로 포함관계가 생기는 두 낱말 사이에서 더 큰 의미영역이 부여된 낱말이 따라나오면 공동지시관계와 후방지시가 가능하다.

Peter sah ein Motorrad, Das Fahrzeug blitzte in der Sonne.

위 문장에서 Fahrzeug는 의미적으로 Motorrad를 내포하고 있다. 즉, Fahrzeug가 Motorrad보다 상위개념이다. 어휘적 의미론적 기저구조에서 Ein Motorrad ist ein Fahrzeug라는 하나의 정의나 Motorrad를 사전기입할 때 [+Fahrzeug]라는 하나의 특징을 통한 포함의 분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로 광범위한 개념이 선행한다면 후방지시는 통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Peter sah ein Fahrzeug. Das Motorrad blitzte in der Sonne.

에서 Es war ein Motorrad와 같은 중간문장을 노치게 된다. 또 하나의 예는 상위개념이 다음 문장연속에서 두 개의 개념을 결합하는 때이다.

Hier stehen zwei Motorräder. Das dritte Fahrzeug ist ein Motorroller.

이러한 유형은 의미론적인 접촉(Kontiguität)을 통한 속향에서 경계를 짓게 된다. 의미론적인 접촉관계는, 의미론적인 특징들의 재현에서 생겨나는 의미론적인 응집의 가장 약하지만 동시에 가장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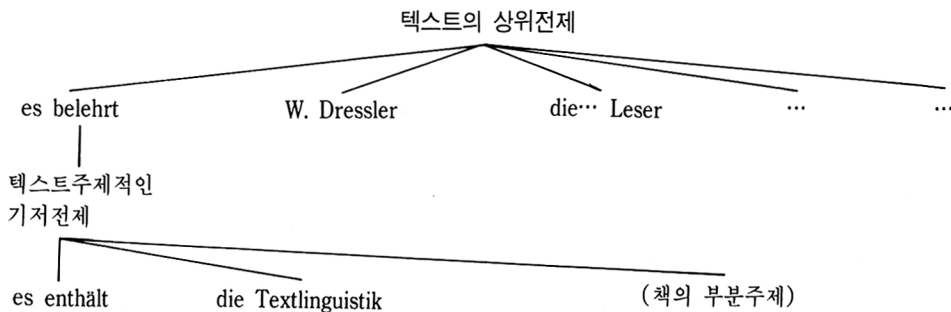
적인 형태이다. Dressler는 이러한 “의미론적인 재현”이 “개념적인 접근”(begriffliche Nähe) 혹은 “접촉”(Kontiguität보다 더 일반적이라고 했다. 그는 Karttune의 한 보기를 인용해서 이러한 문제성을 소개하고 있다.²¹⁾

I was driving on the freeway when suddenly the engine began to make a funny noise. I stopped the car and when I opened the hood I saw that the radiator was boiling.

고속도로상에서 드라이브를 언급하고 있는 첫 번째 문장이 이미 차량(Fahrzeug)이 문제시되고, 여기서 아주 큰 개연성을 가지고 자동차(Auto)가 문제시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어떤 자동차에 엔진, 보닛, 임의적으로 수냉각기가 자동차에 속하기 때문에 이 텍스트단편은 정확하다. 물론 이 텍스트의 화자나 청자가 오토바이 열광자라면, 이 텍스트단편은 불행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다.

4. 텍스트화용론

W.Dressler는 텍스트화용론을 텍스트구성에 있어서 텍스트문법 다음에 있는 수준으로 지시하고 있다. 화용론(Pragmatik)은 어떤 언어적인 요소가 그것의 생산자, 사용자와 의사소통상황에서 수신자에 대한 관계를 취급한다. 화용론적인 관점에서 텍스트야말로 생산자와 수령자 사이의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도구로 나타난다. 이러한 의사소통행위는 여러가지 한정적인 요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자와 수령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케 되며, 텍스트가 생산되고 그 텍스트가 이해되므로 이 양자는 의사소통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Dressler의 저술에서 어떤 화용론적인 취급은, 저자가 그 텍스트로 무엇을 목표하고 있는가, 그 텍스트는 누구에게 향해져 있는가(의도된 수신자), 어떤 의도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 텍스트는 그것을 수행하는가, 어떤 내포적인 전제(Präsuppositionen)가 받아들여 지는가, 어떤 보유매개물(예. 값싼 사물서적)을 선택하는가 등이다. 가장 간단한 표현이 텍스트주제의 어떤 실행적인 상위문장들을 통해서 더욱이 간략하게 된 형태에서 생겨질 것이다.



21) L. Karttune, Pronouns and Variables. 1969 CLS 5, 108-116. W.Dressler, Ebenda, S.38에서 재인용.

또한 구어텍스트들도 유사하게 분석될 수 있다. 심지어 대화계획(Gesprächsplan)이 있는한 대화도 분석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실행적인 상위문장에서 아직도 다른 심층격이나 행동역할, 예를 들어 목표(goal, purpose)와 도구(보유매개물과 비 언어적 동반행동)와 연극등장인물이 덧붙여 진다면, 표현의 어떤 수정이 달성되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Dressler는 Wunderlich²²⁾를 인용하여 의사소통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은 더 많은 요소들을 포함한다고 했다. 발신자, 수신자,²³⁾ 발신시간,²⁴⁾ 장소, 발신자의 감지공간, 통사론적-음운론적 형식에서 표현, 인지적 내용,²⁵⁾ 발신자의 지식과 능력에서, 수신자의 그것에 대한 인수에서 그리고 수신자의 장소와 인지공간에 대한 발신자의 인수에서,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관계에서 전제들, 더 나아가 발신자의 의도 그리고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상호관계이다.²⁶⁾ 선행된 진술의 이해가 그러한 전제들에 속한다고 하는 Wunderlich의 주장이 텍스트화용론의 중심문제에 이르게 한다. 이 사실은 함축적으로 어떤 특유의 텍스트문법적인 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텍스트의 화용론은 문장문법 혹은 개별적인 말하기 활동의 화용론의 총체를 묘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하나의 텍스트는 그 텍스트문장들의 총체라고 하는 전 텍스트언어적인 견해의 어떤 확대된 반복을 의미한다. 이것은 동시에 하나의 텍스트는 전체로서 텍스트로 무엇인가가 목표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어떤 텍스트의 부호화(Kodierung)와 보내기(Sendung)는 의도적이고 최후적인 의사소통의 행위이다.

W.Dressler는 Petö가 위와는 반대로 전체 텍스트에 대해서 어떤 고유의 텍스트화용론적이고 실행적인 상위문장을 받아드릴 필연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²⁷⁾ 지금까지 텍스트의미론(텍스트 주제를 포함해서)을 최고의 수준으로 두었던 T. van Dijk도 유사하게 설계하고 있다. 그러나 W.Dressler는 이것은, 텍스트구성의 한 연구를 위해서 보다는 오히려 텍스트분석(해석)을 위해서 충분할 것이

22) D. Wunderlich, "Pragmatik, Sprechsituation, Deixis", 1971, LiLi 1, 153-190. W. Dressler, Ebenda, S.93에서 재인용.

23) W. Dressler, Ebenda, S.93, 주 35. 혼자서 말할 때 발신자와 수신자는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의 자기 중심적인 말하기에서 마찬가지이다.

24) W. Dressler, Ebenda, S.93, 주 236, 책과 레코드판에서는 흔히 발신시간이 수신시간에서 멀리 나누어진다.

25) W. Dressler, Ebenda, S.93, 주 237. 즉, 화용론은 그 자체에 의미론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통사론과 음운론을 포함한다.

26) W. Dressler, Ebenda, S.93, 주 238, 의사소통적인(실행적인) 술어들의 부류가 여기에 속한다.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텍스트를 통해서 정보를 주려고 한다면, 설명기능(Darstellungsfunktion)이고, 규정적으로 어떤 가치평가나 어떤 태도를 야기시키려고 한다면, 환기기능(Auslösungsfunktion), 자기 스스로 무엇을 평가하려고 한다면, 통고기능(Kundgabefunktion)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적인 술어에서 상황성(Modalität)이 파생된다.

27) W. Dressler, Ebenda, S.94.

다. 보기로서 다음과 같은 문장의 짝을 들고 있다.

Ich verspreche Ihnen, bald mit diesem Kapitel fertig zu sein.

Ich werde nur noch wenige Seiten brauchen.

두 문장에 대해서 저자와 독자사이에 동일한 의사소통적인 상황이 유효할 뿐만 아니라, 이 두 문장은, 두 번째 문장이 역시 하나의 약속이고(특히 *wirklich*란 말로 강조되어 진다면) 동일한 의사소통언행적(illokutionär)인 기능을 가진다. 수신자가 그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 발신자가 그 약속을 성취하고 그 반대는 아니라는 것, 더 나아가서 발신자가 이것을 전제한다는 것, 더욱 발신자가 그 약속한 행동을 여하튼 정상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등의 것이 수신자와 발신자에게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Searle²⁸⁾이 말했듯이, 약속에 대한 화용론적인 조건들이 두 문장에 대해서 유효하다.

V. 텍스트언어학과 번역

텍스트언어학은 이미 종결된 어떤 텍스트에서 야기되어지는 여러가지 텍스트에 관련된 문법의 범주들을 해명하며, 텍스트를 구성한 생산자(저자, 화자)와 수령자(독자, 청자)사이의 의사소통적이고 화용론적인 요인들을 연구하는 언어학의 분과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적인 기능을 소유해야 할 텍스트가 생산자나 혹은 수령자에 의해서 잘못 구성되거나 혹은 잘못 이해되어 진다면 이것은 실패한 텍스트가 될 것이다. 이러한 위험은 무엇보다도 텍스트자체가 가지는 화용론적인 현상과 텍스트문법에 대한 이해의 결여 때문일 것이다.

텍스트의 내용의 궁극적인 목표가 수령자라고 본다면 의사소통적인 면에서 텍스트의 이해와 함께 야기되어야하는 반응은 반드시 수반되는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한 언어내에서의 텍스트라고 해도 생산자와 수령자 사이의 여러가지 요인이나 텍스트자체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때문에 의사소통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A-언어의 텍스트가 B-언어 텍스트로 옮겨질 때 이와 같은 문제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 왜냐하면 출발언어에서 뿐만 아니라 목표언어에서도 역시 텍스트를 형성해야하기 때문이며, 번역과정에서도 출발언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장르가 목표언어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용조건들이 적용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 번역학에서도 텍스트중심적인 관점에서 번역가능성을 옹호하고 이에 대한 여러가지 번역이론들을 세우고 있다.

- 1) 출발언어 및 목표언어의 언어특질 그리고 텍스트특질의 추출, 체계화, 연관에 목표를 두고서 관련

28) J. Searle *Speech acts*. 1969/Cambridge Univ. Press. S.54ff. W. Dressler, Ebenda, S.94에서 재인용.

텍스트를 분석함.

- 2) 번역사의 중요한 텍스트분석과 텍스트유형학을 획득함.
- 3) 번역본과 원본 텍스트에서 출발하여 상이한 언어들에서의 언어규범(Sprachnormen), 문제규범(Stilnormen), 텍스트규범(Textnormen)을 기술하고 대조함.
- 4) 상이한 언어들 내지 수용공동체에서 텍스트/텍스트장르의 수용조건들을 번역에 관련해서 분석하고 기술함.
- 5) 언어·문체의 특질 그리고 미학적 특질의 추출 및 비교에 목표를 두고 개별적 번역본을 분석함.
- 6) 개별적인 텍스트장르들에 대한 번역이론을 획득함.

이상과 같은 여섯 가지 과제는 출발언어를 분석할 때 뿐만 아니라 목표언어를 구성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과제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에 목표를 두게될 때 번역가는 출발언어 텍스트의 장르에 따라 내용에 충실할 것인지 아니면 형태에 충실할 것인지 결정해야될 기로에 처하게 된다.

특히 시 번역에서 출발언어 텍스트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음운(예. 각운)과 문체(예. 문장멜로디 등)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흔히 개작(Nachdichtung)을 해야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개작의 경우에 출발어 텍스트의 장르에 집착하게 되어 내용은 원문에서 멀어질 것이다.

번역이론은 물론 번역실제에서도 이미 시적텍스트의 번역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언어로된 한편의 시를 B-언어로 번역을 수행한다면, 그 번역은 출발언어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시적 아름다움을 상실한 번역에 불과하다. 여기서 유명한 Goethe의 시 "Heidenröslein"에서 생각되어진것(Gemeintes)을 가능한 새롭게 표현해 보고자 한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Sah ein Knab ein Röslein stehn,
Röslein auf der Heiden.
War so jung und morgenschön,
Lief er schnell es nah zu sehen,
Sah's mit vielen Freuden,
Röslein, Röslein, Röslein, rot.
Röslein auf der Heiden.

이 시에서는 문법적으로 es의 생략으로 한편으로는 고풍적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통속적이고 소박하게 작용하고 있다.³⁰⁾ Koller에 의하면 이러한 생략은 어린이의 말하기를 기억나게 하는데, 바로 어린이들은 es와 같은 형식적인 낱말들을 즐겨 생략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이 시에서 저자가 -n으로 끝나는 낱말들의 음운론적 표현인 각운(Reim, Klang)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후

29) W. Koller, *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3, Aufl, Heidelberg/Wiesbaden 1987, 한국어 번역판, 박용삼역, "번역학이란 무엇인가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0. S.126이하.

30) W. Dressler, *Ebenda*, S.34.

럼의 마지막 낱말 rot에서 이제까지의 각운이 깨지면서 이 시의 절정에 이르게 되고 두 번째 후렴의 마지막 낱말이 다시 Heiden으로 끝나면서 평정을 되찾고 있다. 텍스트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또 달리 분석한다면 같은 낱말의 반복을 통해서 텍스트의 응집력을 더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Röslein을 여러번 반복하는 것이다. 어떤 텍스트에서 낱말이나 문장을 반복한다는 것은 텍스트의 주제나 다른 부분과의 관련성을 의미하게 된다. 한걸음 더나가서 “rot”라는 형용사는 “Röslein”과 동의어적인 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텍스트언어학에서 특히 같은 의미를 가진 상이한 낱말들을 표시할 때 자주 사용되는 “Isotopie”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이 시의 통속적인 우리말 번역을 비교하여 보면서 텍스트중심적인 번역의 시각에서 이 번역을 텍스트언어학적으로 분석을 시도하고 번역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외국민요와 가곡집에서 인용한 이 번역의 번역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웬 아이가 보았네
 들에 핀 장미화
 갓 피어난 어여쁜
 그 향기에 반하여
 정신없이 보내
 장미화야, 장미화
 들에 핀 장미화

위의 우리말 번역텍스트는 출발언어 텍스트의 번역도 아니고 목표어의 시형태를 갖춘 완전한 개작도 아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Goethe의 시에 Schubert와 Mozart가 곡을 붙였는데 노래에 있어서도 rot에 강조를 주고 있는 것을 보아도 시와 노래곡에 있어서의 diction이 완벽하게 맞기 때문에 시를 읽을 때나 그 시를 곡조에 맞추어 부를 때나 똑같은 시적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말 번역 텍스트는 출발언어 텍스트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다만 노래를 부르기 위한 우리말의 가사를 사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출발언어 시에서는 장미꽃의 특징인 빨간 색을 절정에 두어 매우 강조했는데 역시 두 노래의 작곡자도 이 노래에서 음의 제일 높은 피치를 사용하여 시와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번역본에서는 “빨간”이라는 낱말에서 강조는 되어있지 않고 오히려 “장미화”에 강조가 되고 있다.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Die Schöpfung)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Es werde Licht!”라는 성경의 텍스트를 받아들여 하이든은 합창곡에서 텍스트에서와 마찬가지로 Licht를 강조하여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모두 “Licht”에서 포르테시모로 울려 퍼진다. 이 텍스트의 우리말 번역은 “빛이 있으라!”이다. 이 텍스트에 의거해서 연주를 한다면 의미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있으라”에 강조가 될 것이다.

이제 Heidenröslein의 제 일절의 텍스트를 텍스트언어학적인 분석을 토대로해서 다시 번역을 한다면

각운을 제외한 몇가지 이 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강조점들이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아이가 장미를 보았네
 들위에 피어난 장미
 갓 피어나 어여뻐
 가까이 뛰어가 싶네
 기뻐하며 보았네
 장미, 장미, 빨강네
 들위에 피어난 장미.

번역할 때 종래의 우리말 번역텍스트를 고려하고 출발언어 텍스트의 텍스트 문법과 강조에 일치시키려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어 텍스트에서 매우 중요시 되고 있는 각운의 효과는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나 독일어의 -n과는 다르지만 우리말에서 - | 의 모음각운을 시도했다.

VI. 결 론

이제까지 고찰해본 결과에서 우리는 텍스트언어학에 있어서 두 가지 응용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그 첫 번째 응용범위는 동일한 언어내에서의 텍스트의 “의의” 내지 “생각되어진 것”을 올바르게 찾아내기 위한 분석의 수단일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분석방법이 번역과정에서 매우 필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특별히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언어학의 방법론이 출발어 텍스트의 분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더나가서 번역과정에서 번역자가 출발어 텍스트의 수신자로 해당 텍스트를 이해하고 다시 목표어의 발신자로서 텍스트를 구성하는 작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토대로서 받아드리려고 했다.

이러한 이론적인 사실을 반증하기 위해서 제5장에서 텍스트언어학과 번역의 함수관계를 인식하고 특히 번역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로 생각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번역불가능하다고까지 언급되고 있는 시의 텍스트를 가지고 번역의 가능성에 대해서 옹호적인 입장을 취해 보았다. 그러나 시의 유형도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시도한 방법이 모든 시에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시의 번역에 있어서 언제나 번역의 불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든 시의 번역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러한 텍스트언어학적인 텍스트분석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Direkt verwendete bzw. zitierte Literaturen

- Coseriu, E. *Textlinguistik. Eine Einführung*/hrsg. von Jörn Albrecht, Tübingen 1980
- Dressler, W. *Einführung in die Textlinguistik*. 2., durchgesehene Auflage, Tübingen 1973.
- Koller, W. *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3., Auflage, Heidelberg/Wiesbaden 1987.
- Lexikon der Germanistischen Linguistik*. Hrsg. von Hans Peter Althaus Helmut Henne/Herbert Ernst Wiengend, 2., vollständig neu bearbeitete und erweiterte Auflage, Tübingen 1980.
- K. -E. Sommerfeld/G. Starke u.a., *Einführung in die Grammatik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Leipzig 1988.

Indirekte zitierte Literaturen

- N. Comsky, *Aspek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1965.
- R. Dougherty, "An Interpretive Theory of Pronominal Reference." *Foundation of Language*. 5.
- M. A. K. Halliday/R. Hasan, *Cohesion in English*. Leipzig 1984.
- K. Heger, *Monem, Wort und Satz*. Tübingen 1971.
- L. Karttune, "Pronouns and Variables" *CLS* 5, 1969.
- Moskalskaja, *Textlinguistik*. Leipzig 1984.
- P. M. Postal/J. Grinder "Missing Antecedents." *Ling* 2,
- Tai J. Hau-y, *Coordination Reduction*. Diss., Indiana University.